

# [고3 성공 입시 및 학교생활 가이드]

## 1. 대입 전형의 종류와 특징

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뉩니다. 본인의 강점에 따라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.

- 수시 모집(수시): 학생부 위주(교과/종합), 논술 위주, 실기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. 9월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총 6회 지원 가능합니다.
- 정시 모집(정시): 주로 수능 성적을 위주로 선발합니다. 12월 말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가, 나, 다군별로 1회씩 총 3회 지원 가능합니다.
- 추가 모집: 정시 모집 이후 결원이 발생한 대학에 한해 진행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

## 2. 주요 시험 일정 및 관리

고3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와 수능 일정 관리입니다.

- 6월/9월 모의평가(모평):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시험으로, 당해 수능의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.
- 대학수학능력시험(수능):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시행됩니다.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정시 전형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.
- 내신 시험: 수시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의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.

## 3. 학교생활기록부(생기부) 관리 규칙

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기록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.

- 교과 학습 발달 상황: 단순 성적뿐만 아니라 '세부능력 및 특기사항(세특)'에 수업 중 발표, 토론, 탐구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창의적 체험활동: 자율활동, 동아리활동, 봉사활동, 진로활동의 앞글자를 따서 '자동봉진'이라고 부르며, 진로와 연계된 활동이 핵심입니다.
- 주의사항: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부모의 사회적·경제적 지위나 공인어학성적, 교외 수상 실적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.

## 4. 슬럼프 극복 및 멘탈 관리

장기적인 고3 생활에서 심리적 안정은 성적만큼 중요합니다.

- 수면 관리: 최소 6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을 권장합니다. 밤샘 공부는 장기 기억력을 저하시킵니다.
- 스트레스 해소: 주 1~2회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뇌에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.

- 마인드 컨트롤: '할 수 있다'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와 함께 목표 대학 포스터를 붙여두는 동기부여 방식이 효과적입니다.
- 

## 5. 자주 묻는 질문 (FAQ 20개)

**Q01:** 수시 6장 지원은 무조건 다 써야 하나요? **A:** 무조건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의 성적대에 맞춰 상향, 적정, 하향 지원을 적절히 섞어 6장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**Q02:**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무엇인가요? **A:** 수시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대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최종 불합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.

**Q03:** 3학년 2학기 내신은 입시에 안 들어가나요? **A:** 현역 고3 학생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는 보통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합니다. 하지만 정시나 재수 시에는 2학기 성적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.

**Q04:**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독서 활동이 중요한가요? **A:** 현재 대입에서 독서 목록 자체가 대입에 미반영되기도 하지만, 책의 내용은 세특이나 면접 질문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꾸준한 독서는 필요합니다.

**Q05:**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인가요? **A:** 아닙니다. 6월 모평은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표일 뿐이며, 이후 학습 전략에 따라 실제 수능 성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**Q06:** 자기소개서(자소서)는 작성해야 하나요? **A:**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은 폐지되었습니다.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

**Q07:** 대학별 고사란 무엇인가요? **A:** 대학에서 직접 실시하는 논술, 면접, 실기 시험 등을 의미합니다.

**Q08:** 논술 전형은 내신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나요? **A:** 네, 논술 전형은 내신 반영 비중이 작고 논술 점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에게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.

**Q09:** 수시 납치가 무엇인가요? **A:**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수능 성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합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시 가능성권 대학은 수시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**Q10:** 사탐/과탐 선택 과목은 어떻게 정하나요? **A:**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 또는 응시 인원이 많아 등급 따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.

**Q11:** 정시 모집에서 '가, 나, 다'군은 무엇인가요? **A:** 대학들이 원서 접수 시기를 구분해 놓은 그룹입니다. 각 군에서 딱 한 군데씩만 지원할 수 있어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.

**Q12:**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요? **A:** 대학마다 전년도 '충원율(추합 인원)'이 다릅니다.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과거 데이터를 확인하여 본인의 번호가 합격권인지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.

**Q13:** 학종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하나요? A: 1단계 합격자 발표 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, 평소 본인의 생기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.

**Q14:** 슬럼프가 왔을 때 공부가 안 되면 어떡하죠? A: 억지로 책상에 앉아 있기보다 한두 시간 정도 완전히 쉬거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회복에 더 빠릅니다.

**Q15:** 수능 샤프는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? A: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수능 샤프를 일괄 지급합니다. 평소에 비슷한 필기감의 샤프로 연습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.

**Q16:** 생기부 세특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유리한가요? A: 단순히 '열심히 함'이라는 문구보다,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찾아보았고 그 결과 무엇을 깨달았는지 과정이 드러나야 합니다.

**Q17:** 교차 지원이 무엇인가요? A: 이과 학생이 문과 계열 학과에 지원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. 보통 수학 미적분/기하 선택자가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**Q18:** 수능 원서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? A: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단체로 접수하며,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합니다.

**Q19:** 대학 등록금 예치금이 무엇인가요? A: 수시에 합격한 후 해당 대학에 다닐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내는 소액의 금액입니다.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.

**Q20:** 고3 체력 관리를 위한 영양제 추천이 있나요? A: 비타민 B군(피로 회복)이나 오메가3(두뇌 회복)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, 가장 좋은 것은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.